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인혁당 희생자 30주기 추모제

- 주최 : 민청학련운동계승사업회, 이수병선생기념사업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민청학련·인혁당진상규명위원회, 사월혁명회
- 주관 : 인혁당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을위한대책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일시,장소 : 2005년 4월 8일, 명동성당 문화관 2코스트 홀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시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겨레와 나라를 사랑한 것 밖에 죄가 없다.

이기형(시인, 민족문화자거회의 고문)

1974년 3월 초
유신 암흑에서도
대화꽃 개나리꽃 진달래는 방긋방긋
방향(芳香) 천지에 뿌렸다.

온 겨레가
서희맛을 찾아 부부논리
푸스늬 날벼락이나
만청화연사건 배후로 저쪽
이집 애국투사를 줄줄이 옮아갔다
조작하여 '민청당사건'이라고

천하에 들도 없는 고문 만행
말길잡 주미집
물과 고추가루와
정기와 물과
공동기와 대바늘과 질사로
생사함을 잡아
죄를 남산만큼 쌓았다.

일심에서도 줄줄이 사형
이심에서도 줄줄이 사형
일년쯤 지난 1975년 친인한 4월 8일
대법원 판결 날
김용원 사형/ 도예중 사형
서도원 사형/ 송상진 사형
여정남 사형/ 우흥선 사형
이수명 사형/ 하재완 사형
친인 공노할 극형
찰라 찰라 수갑을 채운다
여덟 투사는 할 말을 잃었다
시로 멍해 쳐다봤다
한마디의 분문을 터뜨려
'이러워 법이 어딴노!
'생사함을 잡아'
'말할 놈의 세상!
'나라와 겨레를 사랑한 것밖에 죄가 없다!
한 사람 한 사람
독방에 등을 떠밀어 넣는다
그날 밤
투사들은 잠을 못 이뤘다
목이 바삭바삭 탔다

아름다운 고향 산천이 눈앞에 선해
무고 형제, 아내와 자식들의 얼굴
장다운 친구들의 얼굴이 선히 보이고
참지도 눈을 못 부쳤는데
이느새 날이 원히 밝은구나

두박 두박 두박
전 밭길을 소리
앗!
저마다 신경을 곤두세워
집행까지는 꽤 시일이 걸린다던데...
'찰라!
문 파는 소리
'서도원 나왔'
수갑한 팔을 오뎀쫄고 묵는다
'어눔들 댈 것들이냐!
'동지들! 비겁하지 말자!
행리는 다급히 입을 열어박는다
양쪽에 한 사람씩 붙어 팔을 잡고
뒤에는 흥든 간수가 노려본다
민, 민...
들어막은 시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 나온다
저의 저비 떨어지는 발자욱 소리
찰라! / '도예중 나왔!
군사독자를 다도하자!
'찰라! / 하재완
'민주주의 승리 만세!
'찰라! / 송상진
남북통일 만세!
'찰라! / 우흥선
'비군은 물러가라!
'찰라! / 이수명
'당국적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찰라! / 김용원
'아만치 긴급조치법을 폐기하라!
'찰라! 여정남
'자유로운 조국 독립 만세!
애국투사들은
이렇게 형장으로 끌려갔다
아!
목숨은 하늘인데...
목숨은 하늘인데...

죄세를 등에 업고
정권을 찬탈한 독재자
나라와 겨레를 끔찍히 사랑한 투사들의 고
문 흔적을 지우려고,
역지로 조작된 죄가 탄로날까와,
언도 다음날 새벽
천레없이 부랴부랴 교수형을 걸췌
가족들의 항의와 예원도 뿌리치고
시신을 화장하는 만행도 서슴치 않았다.

오늘도 산천이 가득찬
부모님들의 한숨소리
자식들의 괴음음소리
울분으로 단산의 진달래는 피꽃으로 피어
남의 님을 여트지겨 준다
저상이 온다 온다
천추의 한을 끌고
슬픔을 가누지 못한 저
으랴줄에 묶어 총칼에 내몰린
그 사백 그 감옥도
지금은 독립공인으로 바뀌어
형갈 앞 머무너우 일세는
23년전 그날의 사연을 호하듯
살랑살랑 슬픈 목소리로 운다
꽃니이 애국 선열의 목숨을 단칼에 깎아간
그날의 난폭자도 전작 비명여 갔거니
조국 분단 탄력년!
아, 잔인한 세월이여!
그대들의 거룩한 길
우리를 가슴마다에 활활 타올라 증순신으로
피도는 남들의 명예와 영광을
민주화와 통일외 길에서, 오늘
반드시 되찾아 드리오리다

끝내는
백두산 높이 대동일의 깃발을 올려
남들의 넋도 땀나는 그 이름
남북 온 겨레와 어울리 명실명실 증추려니
아, 남북 대동일의 그날이여!
2008. 11. 5

식 순

사회 _ 김학민 민청학련운동계승사업회 사무총장

- ❖ 개회사
- ❖ 민중의례
- ❖ 내빈소개
- ❖ 경과보고 _ 김형태 인혁당 대책위 집행위원장
- ❖ 영 상
- ❖ 추모공연 1 _ 장사익
- ❖ 추도사 1 _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 ❖ 추도사 2 _ 박중기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의장
- ❖ 추모공연 2 _ 노래패 우리나라
- ❖ 추도사 3 _ 이 철 민청학련운동계승사업회 공동대표
- ❖ 유족대표 인사말
- ❖ 추모공연 3 _ 민족춤패 "출"
- ❖ 헌화

□ 식전 행사 - 사형장 참배
서대문독립공원 오후 4시
사회 : 홍승표

- 추모발언
- 추모노래 _ 이지상
- 추모공연
- 헌화와 퍼포먼스

□ 식후 행사 - 만찬
명동성당 별관 오후 8시
사회 : 김찬수

- 건배제의
- 주최단체 소개
- 청년학생 대표 인사말
- 식사

4.9 사범사상 암흑의 날! 돌아가신 열사와 그 후의 열사들

서도원 선생



1923 경남 창녕군 출생. 진주고보 졸업
1975 이른바 '인혁당제건위 사건'으로 사형



하재원 선생

1931 경남 창녕 출생
1975 이른바 '인혁당제건위 사건'으로 사형

도예종 선생



1924 경북 경주시 출생. 대구대 경제학과 졸업
1975 이른바 '인혁당제건위 사건'으로 사형



김웅원 선생

1935 경남 함안 출생. 서울대 물리과 졸업
1975 이른바 '인혁당제건위 사건'으로 사형

우홍선 선생



1931 경남 울주 출생
1975 이른바 '인혁당제건위 사건'으로 사형



송상진 선생

1928 대구 동구 출생. 대구대 경제학과 졸업
1975 이른바 '인혁당제건위 사건'으로 사형

이수병 선생



1936 경남 의령 출생, 경희대 경제학과 재학
1975 이른바 '인혁당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여정남 선생

1945 대구 남일동 출생, 경북대 학생회장
1975 이른바 '인혁당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유진곤 선생



1937 경남 진해군 출생, 부산사범 졸업
1988 인혁당재건위 사건, 고문후유증으로 운명



이재문 선생

1934 경북의성 출생, 경북대 정외과 졸업
1981 남민전 사건으로 복역 중 운명

전재권 선생



1927 경북 상주 출생, 동아일보 기자
1986 인혁당재건위 사건, 복역후유증으로 병사



신항식 선생

1934 전남 고흥 출생, 서울대 철학과 재학
1982 남민전 사건으로 사형

장석구 선생



1927 서울 동대문 출생, 단국대 정치학과 졸업
1975 인혁당재건위 사건으로 복역 중 운명



정만진 선생

1939 대구 서구 출생, 영남대 졸업
1998 인혁당재건위, 출옥 후 운명

이태환 선생



1924 대구 북구 출생. 대구공고 토목과 졸업
2000 인혁당재건위, 출옥 후 운명



조만호 선생

1935 경남 의령군 출생
1996 인혁당재건위, 옥중 후유증으로 운명

이재형 선생



1938 경북 상주 출생. 경북대 경제학과 졸업
2004 인혁당재건위, 출옥 후 운명



제정구 선생

1944 전남 고성 출생. 서울대 정치학과 재학
1999 민청학련, 오랜 투병생활 끝에 운명

김병곤 선생



1953 경남 김해 출생. 서울 상대 재학
1990 민청학련, 오랜 투병생활 끝에 운명



김은 선생

1952 서울 출생. 경기여고-서강대 영문과 재학
2004 민청학련, 오랜 투병생활 끝에 운명

강구철 선생



1954 충북 옥천 출생.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2002 민청학련, 오랜 투병생활 끝에 운명

인혁당 재건위 사건 희생자들의 진실

이른바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 사건이 일어난지 30여년의 세월이 지났다. 1975년 4월 9일은 국제법학자협회에 의해 사법사상의 암흑의 날로 규정된 날이다.

인민혁명당(이하 인혁당) 사건은 64년과 74년 두 차례



에 걸쳐 일어났다. 그래서 64년의 일은 '1차 인혁당', 74년의 일은 '2차 인혁당'이라고 부른다.

1차 인혁당

1차 인혁당사건은 굴욕적인 한일회담으로 야기된 6.3 투쟁을 무마하기 위해 중앙정보부가 도예종열사외에 57명의 혁신계 인사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학생들의 한일회담 반대시위를 배후 조종하여 공산혁명을 일으켜 현정부를 타도하려 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들은 증거가 없어서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표까지 제출해 당시 숙직담당검사가 대신 기소하는가 하면 이들이 전기고문과 물고문 등을 당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져 13명만 유죄가 선고되고 형

량도 최고 3년일정도로 미미했다. 이것이 1차 인혁당 사건이다.

2차 인혁당

2차 인혁당사건은 1차 인혁당 사건 발생 후 꼭 10년이 지난 74년에 일어났다.

유신헌법을 제정하여 장기집권의 꿈에 젖어 있던 박정희는 이에 항거하는 학생들과 지식인들을 탄압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었다. 박정희는 분단 상황에서 국민들이 레드 콤플렉스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심분 활용하여 2차 인혁당사건을 조작하였다.

먼저, 당시 학생운동의 4월 3일 봉기계획을 파악하고 학생운동의 상층부였던 이철·유인태 등을 비롯하여 180여명의 사람을 체포 기소하였다. 이것이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민청학련)'사건이다. 그리고는 이들의 배후에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한내 지하조직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 지하조직이 바로 10년 전 사건 조작에 실패했던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을 다시 체포하고는 대규모 간첩단

인혁당 사건의 개요

을 검거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른바 인혁당재건위원회 사건이다.

총 23명이 구속된 이 사건 관련자들은 74년 5월 27일 내란예비 음모 및 내란 선동이라는 혐의로 기소되어 사형8명 무기징역 7명 15년 이상의 징역형 8명 등 하나같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게다가 재판과정도 일반적인 형사변치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6월 15일 비상 보통 군법회의의 1심 재판을 시작으로 10개월 만에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게 된다. 대법원은 75년 4월 8일, 이 사건의 주요 관계자 8명에 대해 사형을 확정하였고, 놀랍게도 판결이 난 그날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8명에 대한 사형이 전격적으로 집행된다. 공안사범이라해도 사형선고 이후 적어도 3, 4 년은 그 집행을 미루는 관행에 비해 극히 이례적인 이날의 사형집행은 조작의 전모가 밝혀지길 두려워한 박정희에 의한 폭거였고, 우리 민족사에 씻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비극이 되고 말았다.

인혁당 희생자 그들은 누구였나

이렇듯 1,2차 인혁당 사건은 학생들을 비롯한 이 땅의 양심세력들이 박정희정권을 비판하려는 각을 세우기 시작하면 그 매후세력으로서 혁신계 인사들을 지목하고 이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혁명을 일으켜 노동자 정권을 세우려 했다는 혐의를 씌워 왔던 것이다. 게다가 2차 인혁당의 형집행



과정을 살펴보면 박정희 정권이 혁신계 인사들을 말살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

75년에 사형당하거나 옥고를 치른 분들은 모두 4.19시기에 활동했던 당시로서는 새세대 청년활동가들이었다. 이들은 우리 민족의 반외세 반과쇼 투쟁의 큰 물줄기에서 한시대를 감당하시던 분들이었다. 청년이었을 4.19당시, 이들은 혁명의 결과물이 민중의 것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있었다. 민주당 정권은 이승만독재정권의 잔재들을 청산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종속을 가점을 2.8 한미경제협정을 추진하고 반외세 민족통일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대토규제법과 반공임시특별법을 추진하려 했다. 이에 변혁운동세력은 '민족 자주통일 중앙협의회'(민자통)을 결성하고 새로운 변혁운동으로 민족통일운동과 통일전선운동

인혁당 사건의 개요

을 펼치기 시작했다. 61년의 통일운동은 그야말로 일대 변혁이 아닐 수 없었다. 6.25전쟁 뒤 반공을 국시로 삼은 이승만 정권치하에서 '통일'이라는 단어조차 입에 담을 수 없던 시절에 그들은 세시대의 청년으로서 당당히 나섰다.

그러나 61년의 5.16군사쿠데타는 이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었으며 세세대 청년들은 다시 군사과소정권에 대항하여 싸워야 했던 것이다. 64년 1차 인혁당 사건에 관여했던 도예중, 김용원, 우홍선, 이계문. 6.25전쟁 이전부터 변혁운동에 참여 해오셨던 하재완, 장석구, 전재권, 이태환. 4.19당시 청년운동과 통일운동을 힘차게 벌여나 가다 5.16쿠데타 이후 수감되었던 이수병, 정만진. 그리고 74년 민청학련 지도부였던 여정남 등. 이들의 경력 중 일부만 보아도 우리 변혁운동의 구심점이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남은 우리들이 할 일

74년 이후, 그들이 남기고 간 것을 우리는 한동안 찾을 수 없었다. 공판조서는 물론이요 유언까지 조작되었던 그들의 죽음! 오열하는 유족들과 그들을 살려내고자 조지오글 목사와 제임스시노트 신부를 비롯한 '월요모임' 소속의 신부님들과 목사님

들의 규명운동도 언론보도 통제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었다.

인혁당사건에 대한 재평가 및 명예회복의 움직임은 14년이 지난 89년에야 시작했다. 대구와 서울 경희대에서 인혁당 열사 추모제가 열렸고 추모비가 건립되었다. 그 후 98년 4월 9일 천주교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혁당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발족하였다.

2002년 9월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이 사건을 직권조사하면서 인혁당제기위 사건이 중앙정보부에 의한 고문과 이를 통한 증거 조작, 공판조서 허위 작성, 진술조서 변조, 위법한



제판 등에 의해 조작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군사정권 18년간의 여러 인권유린 사건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고문 조작사건이다. 또 그 과정에서 희

생당하신 분들은 격동과 변혁의 시기에 깨어있는 의식으로 선구적인 삶을 살다간 분들이었다.

이제 열사들이 간직하고 떠났던 자주 민주 통일의 비원을 가슴에 두고, 그 순결한 정신을 되살리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이며,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참민주인의 모습일 것이다.

열사들이 떠나신 후에

- 1974. 4. 3 민청학련 시위관련 박정희 특별담화 발표후 긴급조치 4호 선포
- 1974. 4. 25 중앙정보부 민청학련 배후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 후 관련자 체포 구속
- 1974. 7. 11 비상보통군법회의 사형 선고
- 1974. 11. 4 비상고등군법회의 항소 기각
- 1974. 11. 8 구소자 가족 8인 탄원서 제출
- 1974. 12. 9 부인 7인 탄원서 제출 / 15인 사회저명인사 서명(김수환 추기경, 한정직 목사, 이병린 변호사, 김관석 목사, 이해영 목사, 윤반웅 목사, 박창균 목사, 최명환 목사, 문정현 신부, 지정환 신부, 강신명 목사, 신현봉 신부, 이태영 변호사, 서남동 교수, 함석헌 선생)
- 1974. 12 조지오글 목사 목요기도회 등 신원운동으로 강제출국
- 1975. 1. 6 신·구교 주한외국인 선교사 60인 대통령, 대법원장에 무죄 탄원
- 1975. 2. 6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인권회복을 위한 기도회 '현실고발' 성명 발표. 인혁당 관련자에 대한 고문협박 규탄
- 1975. 2. 19 구속자가족협의회 및 동 후원회 공동성명. 고문위계에 의한 정치적 조작극임을 규탄
- 1975. 2. 24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구속자가족협의회 후원회 '인혁당사건 진상을 조사·발표하 면서', '인혁당의 진상은 이렇다' 성명 발표
- 1975. 2. 26 김지하 '고행...1974' [동아일보]에 인혁당 수기 발표 후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구속
- 1975. 3. 6 구속자가족협의회, 동 후원회, 목요정기기도회 공동성명 TV방송 간첩왜곡보도에 항의 성명
- 1975. 4. 8 대법원 상고기각, 형 확정. 제네바 국제법학자협회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
- 1975. 4. 9 이수명, 도예중, 서도원, 하재완, 김용원, 우홍선, 송상진, 여정남 등 여덟분 서대문구 치소에서 은명하심
- 1975. 4. 10 국제사면위원회, 민주회복국민회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정권의 비이성적 만행 규탄
- 1975. 4. 30 제임스 시노트 신부, 인혁당 구명운동으로 강제출국
- 1975. 5. 3 박형규, 김관석 목사 등 보복구속
- 1975. 5. 4 김지하 양심선언 발표(조정래 초고), 인혁당사건 진상공개 촉구

- 1977. 8 김수환, 윤보선, 김관석, 이천환, 함석헌, 양일동, 김 철 등 7인 재심청구 진정
- 1979. 10. 9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사건' 발표
- 1982. 3. 3 이른바 '인혁당제건위 사건' 관련 생존자 감형
- 1982. 12. 25 '인혁당제건위 사건' 관련 생존자 전원 출소
- 1995. 4. 8 서대문독립공원(옛 서대문구치소 자리)에서 20주기 추모 행사
- 1998. 11. 9 '소위 인혁당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 회'(공동대표 : 이돈명, 문정현) 발족.
- 2000. 4. 25주기 추모제 진행.
- 2000. 10. 27-11. 1 제5회 인권영화제에 인혁당의 진실을 파헤친 다큐영화 '4월 9일'(감독 김태일, 제작 푸른영상) 출품
- 2001. 4. 9 '인혁당 대책위 '4.9통일열사 추모문화행사' 진행
- 2001.12. 7 민청학련사건 '명예회복위원회'에 접수
- 2002. 4. 9 인혁당 대책위 27주기 추모행사
- 2002. 9. 12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인혁당제건위 사건 고문조작 사실 발표.
- 2002. 12. 10 서울지방법원에 인혁당사건 재심청구
- 2003. 4. 9 인혁당대책위 28주기 추모행사
- 2003. 11. 21 인혁당사건 재심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심리 개최
- 2004. 4. 민청학련 사건 30주년 · 인혁당 희생자 29주기 추모행사
- 2004. 8. 24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장관에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 2004. 11. 5 대구지역 민교협 · 민변에서 '인혁당 사건과 국가보안법'을 주제로 인권세미나 개최
- 2005. 1. 13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활동에 인혁당사건 포함한다고 발표.
- 2005. 2. 1 소설가 '김원일' 인혁당 사형수를 소재로 한 소설 『푸른혼』출간
- 2005. 4. 8 명동성당 코스트홀에서 인혁당 희생자 30주기 추모제 개최